

# 넥센타이어 002350

## NDR 후기: 구조적 성장에 주목

### 이제 2nd Tier가 주도하는 타이어 시장

타이어 시장의 성장 주체가 Top Tier에서 2nd Tier로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연 +1~2% 저성장이나 한국 3사 등 2nd Tier 판매량은 시장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Top Tier와의 2~3배 가격 격차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합리적 가격대를 보유한 2nd Tier로 수요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가격 인상 주도권도 2nd Tier로 이동 중이다. 통상 Top Tier가 선제 인상하면 2nd Tier가 후행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이란 사태 국면에서는 2nd Tier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4월 말 유럽·중남미·아태 권역에 5% 평가 인상을 고지하며 유럽에서 한국 3사 중 가장 선제적인 행보를 보였다.

### 재료비율 상승하겠으나 가이던스 유지 가능한 수준

2Q26 매출액 8,520억원(+5.9% 이하 YoY), 영업이익 426억원(Flat)을 전망한다. 이란 사태에 따른 합성고무·카본블랙 단가 상승으로 재료비율이 최대 약 35%(+3%p QoQ)까지 오를 수 있다. 다만 기존 재고와 믹스되며 OPM 영향은 -1.5%p QoQ로 경감된다. 2022년 피크 시점 재료비율 40%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적자 우려는 제한적이다. 4월 말 고지한 5% 평가 인상이 2Q26말~3Q26부터 반영되며 비용 압력을 상쇄할 전망이다. 한국 신제품 출시와 미국 올웨더 라인업 확장을 통한 ASP 1~2%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연간 가이던스 매출 3.3조원, OPM 7%는 유지 가능할 전망이다.

### 단기 6월 EU 중국산 반덤핑 관세, 중장기 5공장 신설에 주목

단기 모멘텀은 6월 18일 부과 확정된 EU 중국산 반덤핑 관세다. 동사 부과율은 30%로 한국타이어(3%) 대비 높지만 절대 부과율보다 중요한 점은 EU 시장 내 중국산 물량 유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럽 RE 시장을 왜곡해온 중국산 저가 물량 정리로 2nd Tier 전반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 동사는 한국 병행 생산 체제 구축으로 직접적 관세 영향이 최대 OPM 약 -1%p에 그칠 전망이다. 중장기 모멘텀은 5공장이다. 2028~2029년 투자 및 2030년 가동 목표로 2026~2027년 중 부지 결정 발표가 예상된다. 수요가 담보된 증설로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02	2,848	3,190	3,283	3,424
영업이익	187	172	170	175	252
영업이익률(%)	6.9	6.0	5.3	5.3	7.4
세전이익	150	170	198	193	27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03	126	151	156	226
EPS(원)	1,044	1,285	1,559	1,612	2,343
증감률(%)	흑전	23.0	21.4	3.4	45.3
ROE(%)	6.3	7.1	7.7	7.4	10.1
PER (배)	7.7	4.7	4.8	4.3	2.9
PBR (배)	0.5	0.3	0.4	0.3	0.3
EV/EBITDA (배)	6.0	5.2	4.6	3.1	2.5

자료: 넥센타이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최태용 자동차·2 차전지  
02-709-2657  
tyc@ds-sec.co.kr

2026.05.13

### 매수

목표주가(유지)	11,000원
현재주가(05/12)	6,890원
상승여력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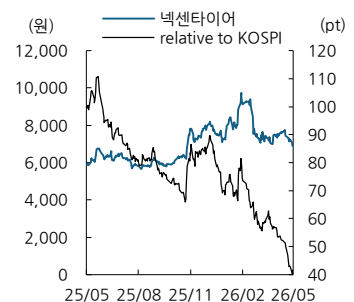
#### Stock Data

KOSPI	7,643.2pt
시가총액(보통주)	673십억원
발행주식수	97,668천주
액면가	500원
자본금	54십억원
60일 평균거래량	184천주
60일 평균거래대금	1,434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0.43%
52주 최고가	10,110원
52주 최저가	5,620원
주요주주	
넥센(외 3인)	69.2%
브이아이피자산운용(외 1인)	5.0%

#### 추가추이 및 상대강도

(%)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M	-8.1	-38.6
3M	-25.5	-63.9
6M	-11.8	-95.9

#### 주가차트



## NDR 주요 내용 정리 및 전망

### 1. 업황: 글로벌 2nd Tier 타이어사들의 구조적 성장기

2<sup>nd</sup> Tier들의 저변 확대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

타이어 시장의 성장 주체가 Top Tier에서 2nd Tier로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연 +1~2%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 3사 등 2nd Tier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세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과거 프리미엄 차량 OE는 Top Tier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최근 2nd Tier로의 수요 확산세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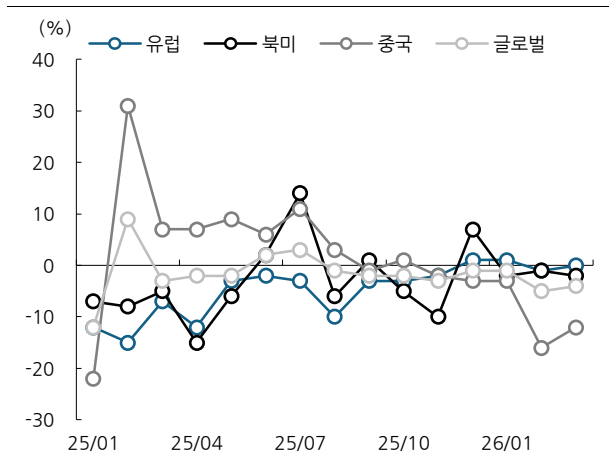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합리적 가격에 주목

이는 Top Tier와 2nd Tier 간 가격 격차가 2~3배에 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 국면까지 맞물리며 합리적 가격대를 보유한 2nd Tier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2nd Tier도 Top Tier에 근접한 수준까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로 시장성이 아직 부족하다. 반면 중국 업체는 동등 성능 구현 및 대량 공급 역량이 부재하다. 윈터 타이어 3PMSF 인증 통과조차 불가능한 기술 수준이며 ESG 이슈로 글로벌 OEM의 채택도 제한된다. 2nd Tier와 중국 업체 간 격차가 단기에 좁혀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과거와 달리  
평가 인상 주도도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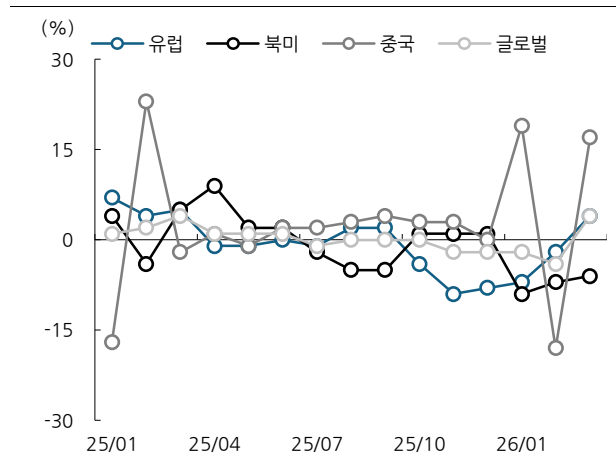
평가 인상 주도권도 2nd Tier로 이동하고 있다. 통상 Top Tier가 먼저 평가 인상을 단행하면 2nd Tier가 후행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이란 사태 국면에서는 2nd Tier가 선제적으로 평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Top Tier는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 수준에서 추가 인상 시 판매량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최근 2~3년간 유럽과 북미에서 판매량 감소가 지속되어 공격적 인상이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넥센타이어는 4월말 유럽·중남미·아태 권역에 5% 평가 인상을 선제적으로 고지한 상태다. 유럽에서 Top Tier 중 브리지스톤과 피렐리 정도만 각각 3~5%, 4% 인상 폭을 상회함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한국 3사 중에서도 가장 선제적인 행보다. 한편, Top Tier들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설비를 폐쇄하는 추세다. 대조적으로 한국 3사는 적극적으로 판매가 담보된 증설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1 글로벌 OE 타이어 YoY 성장률



자료: 회사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글로벌 RE 타이어 YoY 성장률



자료: 회사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1Q26P Re: 유럽 램프업 완료 및 비용 안정화로 양호한 실적 시현

부정적 요인 다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성 실현

1Q26 매출액 8,383억원(+8.7% 이하 YoY), 영업이익 542억원(+33.1%)으로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를 경신하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중동 판매 차질과 3월 운임 인상분 일부 반영, 미국 품목 관세 비용 약 140억원(매출 대비 1.2%)이 반영되었음에도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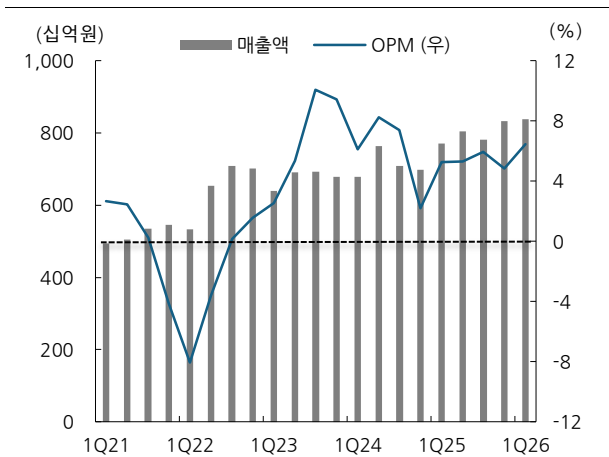
재료비/운임비 안정화, 유럽 공장 램프업 완료, 믹스 개선 지속 등이 주요

양호한 실적을 견인한 요인은 크게 6가지다. [재료비] 재료비율이 32%(-5%p)로 원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25년 하반기 안정화된 원재료가 1Q26에 투입되며 약 1~2개 분기 레깅 효과가 발현된 영향이다. [운임비] 해상 및 내륙 운반비 합산 운반비율이 8.2%로 평년 10% 수준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램프업] 체코 공장 2단계 증설분이 26년부터 완전 가동 단계에 진입했다. 가동률이 24년 30~40%, 25년 상반기 50%대에서 1Q26 92%(사실상 풀가동)로 상승하며 고정비 부담이 축소되었다. [믹스] 고인치(18인치+) 매출 비중이 40.8%(+4%p)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믹스 개선이 가속화되었다. 고인치 외에도 EV 범용 제품(EV ROUTE), 올웨더 타이어, SUV 특화 제품 등 고품가 라인업 판매 확대로 ASP는 지속 상승 중이다. [OE] OE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했다. OE는 신차 출시 3년 전에 수주가 확정되는 구조다.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선행적으로 확보된 물량이 안정적으로 실적화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BMW 노이어 클라세의 첫 양산 차종 i3에 OE 공급을 시작하며 프리미엄 OE 침투력을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환율] 우호적 환율 변동(유로화)으로 영업외단에서 외화 관련 이익 262억원이 반영되었다.

저가 물량 공세와 중동 사태에 따른 중동 판매 부진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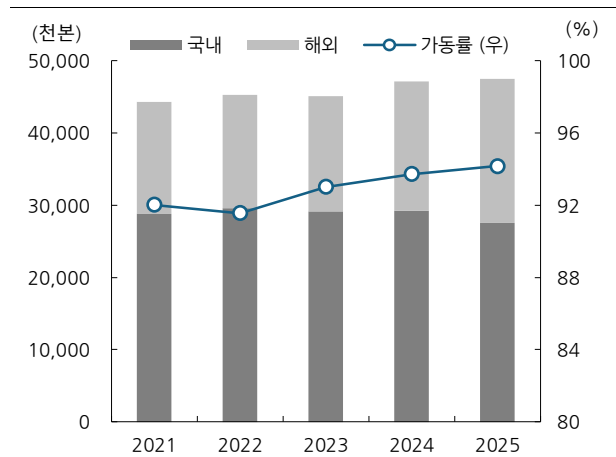
다만 중동 지역 매출 부진이 있었다. 이란 사태 영향으로 3월 판매가 전무했다. 사실 이미 1~2월부터 유럽 반덤핑 부과를 앞두고 중국산 저가 물량이 중동으로 집중 유입되며 판매 부담이 있었다. 중동 매출 비중은 약 6%로 1분기 기타 지역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중국산 물량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안정적 판가 유지를 우선하되 향후 중남미, 아시아 지역으로 물량을 재배분해 판매를 충당할 계획이다.

그림3 넥센타이어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금호타이어 지역별 연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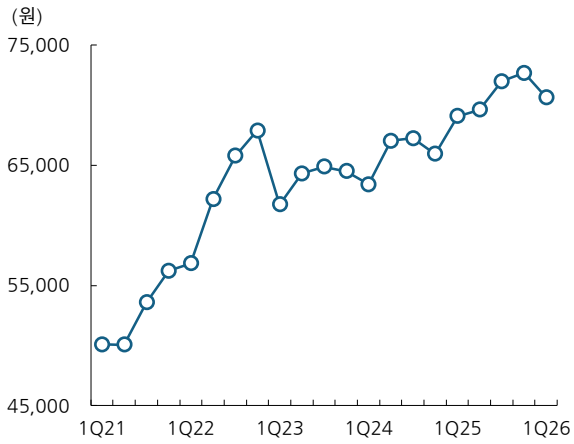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3. 2026F Pre: 재료비율 상승하겠으나 가이던스 유지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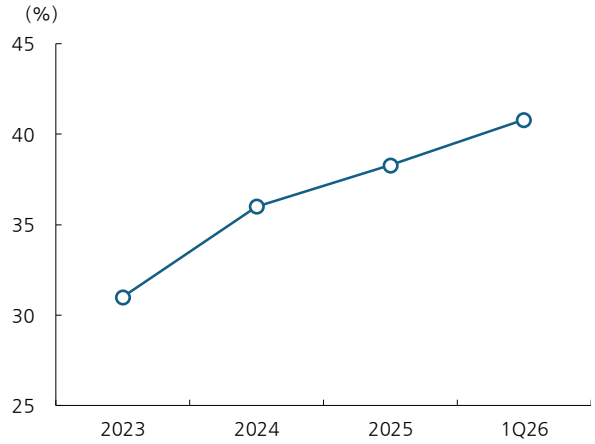
<p>기존 가이던스는 유지</p>	<p>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3.3조원, OPM 7% 수준을 유지한다. 1Q26 실적이 내부 계획을 상회한 만큼 2Q26~3Q26 비용 충격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여전히 달성 가능 수준이다. 2Q26F 매출액 8,520억원(+5.9%), 영업이익 426억원(Flat)을 전망한다. 2Q26 OPM은 최대 -1.5%p QoQ 영향이 예상된다. 적자나 가이던스 하향이 검토될 수준은 아니다. 환율은 영업단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업외단에서는 유로화 롱포지션 구조상 유로 강세 시 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사업 계획상 환율 가정 대비 현재 유로 환율 수준을 감안 시 영업외단 추가 업사이드 여지도 존재한다.</p>
<p>2Q26F: 재료비율 +3%pQoQ, OPM -1.5%pQoQ</p>	<p>원재료비는 2Q26부터 본격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합성고무와 카본블랙 시장단가는 1Q26 대비 약 20% 이상 상승했다. 이에 재료비율은 최대 약 35%(+3%p QoQ)로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기존 재고와 믹스되며 OPM에는 그 영향이 절반 수준(1.5%p)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2022년 피크 시점 재료비율 40% 수준과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적자 우려는 제한적이다. 다만 이란 사태가 2Q를 넘어 장기화될 경우 3Q26에 재료비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다.</p>
<p>운임료는 안정적 수준 지속할 전망</p>	<p>해상운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3월 SCFI가 1,400~1,700pt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물류대란 당시 4,000~5,000pt 대비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글로벌 물동량 위축 기조와 신조선 투입 지속으로 구조적 상승 압력은 낮다. 유럽 항로는 6개월 단위 장기 계약(1월/7월 갱신)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주 항로는 5월 1년 단위 갱신 시점이 도래한다. 계약 효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협의 중이다. 운반비율은 2Q26 다소 상승하더라도 10% 이내 수준일 전망이다.</p>
<p>유럽/중남미/아태 평가 인상 효과 2H26부터, 한국은 2H26 인상 예상, 미국 인상 여지는 제한적,</p>	<p>평가 인상이 비용 압력의 핵심 상쇄 수단이다. 4월 말 유럽·중남미·아태 권역에 5% 평가 인상을 고지했다. 5~6월부터 신규 수주분에 적용되어 2Q26말~3Q26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 지역은 1Q26 믹스 개선만으로 자연스러운 평가 인상 효과(하이싱글 수준)가 시현되었다. 공식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이연한 상태다. 미국 지역은 시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산(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 저가 물량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전(全) 업체가 인상을 보류 중인 만큼 하반기 중 시장 동향을 감안해 검토 예정이다. 한국 신제품 출시와 미국 올웨더 라인업 확장을 통해 공식 평가 인상 없이 ASP 1~2% 상승을 확보할 계획이다.</p>

그림5 넥센타이어 AS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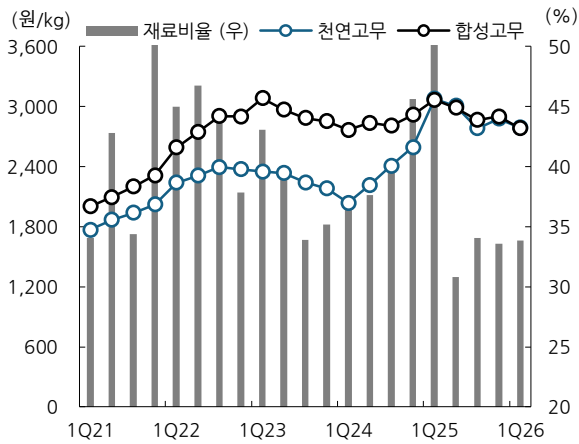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넥센타이어 고인치 타이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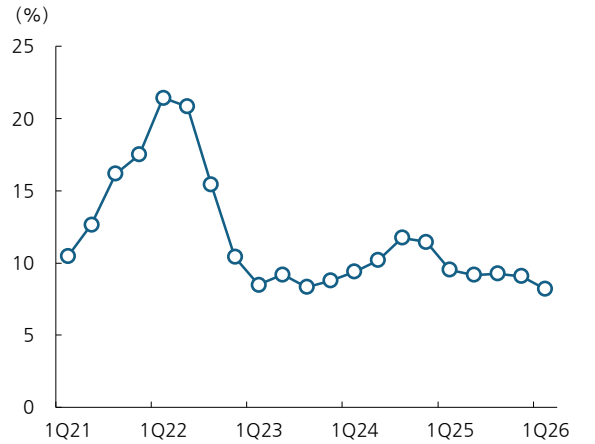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넥센타이어 주요 원재료 투입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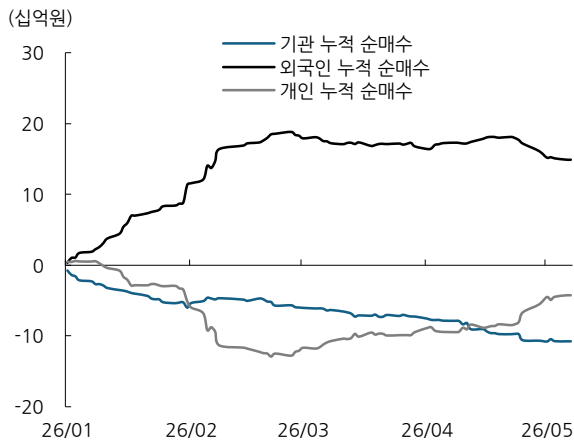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넥센타이어 물류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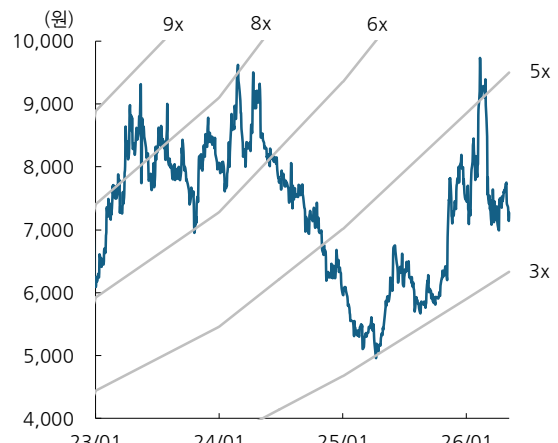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넥센타이어 수급 현황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넥센타이어 PER(12M fwd.) Band Chart



자료: QuantiWis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4. 향후 CAPA 계획: 유럽 램프업 완료, 신규 5공장 검토 중

체코 2공장 램프업 완료로  
총 4,800만본 CAPA  
풀가동 돌입

4개 공장(한국 2개, 중국, 체코) 합산 캐파는 연간 약 4,800만본이다. 사실상 26년 풀 가동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체코 공장은 2019년 1단계 500만본 가동 개시 후 24년 1월 2단계 500만본 증설을 완료했다. 26년부터 합산 1,000만본 풀 가동이 시작되었다. 26년 체코 공장 연간 생산량은 약 980만본으로 작년 대비 150만본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 27년부터는 물량 증가보다 효율화를 통한 추가 생산과 고인치 믹스 개선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유럽 매출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만큼 체코 공장의 풀 램프업은 매출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 직접적인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5공장 신설 검토 중으로  
2030년 가동 예상

신규 5공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8~2029년 투자 및 2030년 가동이 목표다. 2026~2027년 중 부지 결정 발표가 예상된다. 지난 2023년 미국 중심에서 현재 글로벌 전 지역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동일 규모 기준 미국 공장 투자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인력 수급 난이도, 자동화 한계 등으로 BEP 도달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다. Top Tier들도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저원가 국가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더 유리해 미국 공장 가동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향후 2~3년간은 자금 조달에 앞선 차입금 상환에 집중할 전망이다. 체코 공장 총 투자비 약 1조 2,000억원이 전부 차입으로 총당되었다. 현재 순차입금이 약 1조 200억원 수준이며 1조원 이내로 축소되어야 다음 공장 투자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 5. 기타 주요 내용

##### 1) EU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EU 내 중국산 수입 물량의  
시장 왜곡 해소 기대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중국산 승용 타이어 반덤핑 조사 결과는 2026년 6월 18일 부과 확정된 상태로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넥센타이어 부과율은 30% 수준으로 한국타이어(3%) 대비 높다. 중국산 타이어 물량 순으로 상위 2개 업체 중 하나였던 한국타이어는 의무답변자로 지정되며 소명 기회가 있었다. 반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은 협조기업으로서 중국 타이어 업체와 한국타이어 간 평균치가 일괄 적용된 결과였다.

생산지 이원화 등 조치와  
함께 가이던스에는  
반덤핑 관세 영향 기반영

다만 절대 부과율보다 중요한 점은 부과 시점 이후 EU 시장 내 중국산 물량 유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럽 RE 시장 수요를 왜곡해온 중국산 저가 물량이 정리되면 2nd Tier 전반에 우호적인 가격·물량 환경이 조성된다. 넥센타이어는 중국 공장 연간 1,000만본 중 약 300만본을 유럽에 수출해왔다. 2024년부터는 한국 병행 생산 체제를 구축해 약 200만본을 한국산으로 대응 가능한 상태다. 한국-중국 제조원가 차이가 약 30%로 관세 부담과 한국산 대응 비용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반덤핑 관세 시행 시 연간 OPM 영향은 약 -1%p로 추정된다. 연간 사업 계획에는 이미 반덤핑 40%, 상계관세 10%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가이던스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미 1~2월 EU 시장 내 중국산 수입량 감소 및 유통 재고 정상화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 하반기 시장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2) 미국 품목 관세 및 시장 수요 부진

관세 영향은 상당 부분 전가,  
고수익성 리테일 확대로  
수익성 회복 기대

1Q26 관세 비용은 약 140억원으로 분기당 100~150억원 수준의 유지가 예상된다. 미국향 물량을 한국산으로 대응 중이며 한국산 품목 관세 15% + 반덤핑 관세 약 4%가 부과되고 있다. OE는 완성차가 제품 크레딧으로 환급해 주는 구조이며 RE는 25년 판가 인상을 통해 이미 절반을 전가했다. 추가 인상은 동남아산 저가 물량 유입에 따른 시장 수요 부진으로 보류 중이다. 미국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동남아산 저가 물량 압박이 지속되는 구조로 단기간 내 가격 환경 개선은 제한적이다. 다만 동사는 월마트향 고인치 공급 확대(2025년말 월 4만본 → 1Q26 월 7만본), 올 웨더 라인업 추가, ATD 의존도 축소 후 소형 리테일 채널 다변화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없이도 물량과 믹스 측면에서 회복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3) 수익성 격차 구조 요인

리테일 공략을 위한  
현지 창고 투자 고정비 부담,  
레버리지 효과는  
3~4년 소요 예상

국내 경쟁사 대비 약 10%p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있다. 이 중 약 6%p가 감가상각비 차이에서 기인한다. 최근 10년간 대규모 신식 공장 투자를 지속해 감가상각비 비율이 동종업체 대비 약 6%p 높은 수준이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아직 상각이 완료된 공장이 없다. 나머지 격차는 판관비 부담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창고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다. 창고 인프라는 도매업체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리테일 직접 판매(ex. 월마트 등)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유통마진 제거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 다만 창고 효율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까지 약 3~4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단기 수익성 격차 해소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축소가 기대된다.

4) 원재료 수급 안정성

원재료는 조달처 다변화로  
수급 차질 가능성 제한적

이란 사태로 합성고무 및 카본블랙 가격이 급등했으나 대부분을 한국 화학 기업으로 부터 조달하는 구조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다. 사태 장기화 시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천연고무는 베트남, 태국 중심에서 아프리카산 비중을 확대 중이며 가격 경쟁력과 유럽 수송 용이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5) 주주환원 정책

선제적인 차입금 축소 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

절대적 금액 수준은 미미하나 27개년 연속 결산배당을 진행하며 2026년 DPS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향후 2~3년은 차입금 상황에 집중하는 만큼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제한적이다. Value-up 공시는 26년 내 검토 중이나 대규모 환원보다는 중장기 방향성 제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입금 1조원 이내 축소와 신규 5공장 투자 완료 이후 주주환원 확대 본격화를 기대 가능하다.

표1 넥센타이어 1Q26P 실적 Review

(십억원, %)	1Q26P	4Q25	1Q25	QoQ	YoY	컨센서스	Gap	DS 추정치	Gap
매출액	838	833	771	0.6	8.7	836	0.3	810	3.4
복미	191	152	181	25.3	5.3			185	
유럽	375	334	316	12.2	18.5			354	
한국	143	159	115	(10.1)	23.7			120	
기타	130	108	158	20.6	(18.0)			151	
영업이익	54	40	41	33.9	33.1	56	(2.5)	58	(7.3)
OPM	6.5	4.9	5.3	1.6	1.2	6.6	(0.2)	7.2	(0.8)
지배순이익	62	37	40	66.8	55.9	40	54.9	49	27.1
NPM	7.4	4.5	5.2	2.9	2.2	4.8	2.6	6.0	1.4

자료: 회사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2 넥센타이어 추정치 변경 Table

(십억원, %, %p)	변경전		변경후		Gap	
	2026F	2027F	2026F	2027F	2026F	2027F
매출액	3,283	3,424	3,283	3,424	0.0	0.0
영업이익	175	252	175	252	0.0	0.0
OPM	5.3	7.4	5.3	7.4	0.0	0.0
지배순이익	157	227	157	227	0.0	0.0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3 넥센타이어 실적 추정 Table

(천 대, 십억원, %, %p)	1Q25	2Q25	3Q25	4Q25	1Q26P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증감률
<b>주요지표</b>												
원/달러	1,453	1,402	1,386	1,450	1,464	1,475	1,450	1,440	1,422	1,457	1,410	2.4
원/유로	1,529	1,589	1,619	1,688	1,714	1,726	1,711	1,728	1,607	1,720	1,692	7.0
원/위안	199	194	194	205	212	215	212	212	198	212	209	7.4
ASP	69,087	69,628	72,006	72,691	70,670	69,211	70,303	67,778	70,846	69,502	71,817	(1.9)
판매량	11,163	11,557	10,842	11,460	11,862	12,310	11,672	11,387	45,022	47,231	47,670	4.9
고인치 판매 비중	37	35	38	43	41	37	39	43	38	40	41	1.4
<b>매출액</b>	<b>771</b>	<b>805</b>	<b>781</b>	<b>833</b>	<b>838</b>	<b>852</b>	<b>821</b>	<b>772</b>	<b>3,190</b>	<b>3,283</b>	<b>3,424</b>	<b>2.9</b>
복미	181	195	177	152	191	201	197	177	706	767	787	8.7
유럽	316	338	321	334	375	380	344	376	1,309	1,476	1,560	12.7
한국	115	124	139	159	143	127	133	113	537	516	551	(3.9)
기타	158	148	144	108	130	143	147	105	558	524	525	(6.1)
<b>매출원가</b>	<b>570</b>	<b>590</b>	<b>558</b>	<b>600</b>	<b>592</b>	<b>620</b>	<b>604</b>	<b>575</b>	<b>2,317</b>	<b>2,390</b>	<b>2,432</b>	<b>3.2</b>
GPM	26	27	29	28	29	27	26	26	27	27	29	(0.2)
<b>영업이익</b>	<b>41</b>	<b>43</b>	<b>46</b>	<b>40</b>	<b>54</b>	<b>43</b>	<b>41</b>	<b>37</b>	<b>170</b>	<b>175</b>	<b>252</b>	<b>2.9</b>
OPM	5.3	5.3	6.0	4.9	6.5	5.0	5.0	4.8	5.3	5.3	7.4	(0.0)
<b>지배순이익</b>	<b>40</b>	<b>19</b>	<b>55</b>	<b>37</b>	<b>62</b>	<b>37</b>	<b>34</b>	<b>25</b>	<b>151</b>	<b>157</b>	<b>227</b>	<b>4.3</b>
NPM	5.2	2.4	7.0	4.5	7.4	4.4	4.1	3.2	4.7	4.8	6.6	0.1
<b>YoY</b>												
매출액	13.7	5.4	10.2	19.4	8.7	5.9	5.1	(7.4)	12.0	2.9	4.3	
영업이익	(2.0)	(32.2)	(11.0)	161.8	33.1	0.0	(11.1)	(8.5)	(1.1)	2.9	43.9	
OPM	(0.8)	(2.9)	(1.4)	2.6	1.2	(0.3)	(0.9)	(0.1)	(0.7)	(0.0)	2.0	
지배순이익	(2.5)	(56.7)	(917.2)	(22.6)	55.9	93.9	(38.6)	(33.8)	19.4	4.3	44.5	

자료: 회사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주: 증감률은 2025년 대비 2026년 변화율

[ 넥센타이어 002350 ]

재무상태표	(십억원)					손익계산서	(십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2023	2024	2025	2026F	2027F
유동자산	1,556	1,875	1,971	1,923	2,008	매출액	2,702	2,848	3,190	3,283	3,424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8	137	160	166	162	매출원가	1,962	2,055	2,317	2,390	2,43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50	646	775	776	816	매출총이익	739	793	873	892	992
재고자산	641	894	866	804	845	판매비 및 관리비	552	621	703	717	740
기타	128	198	170	177	184	영업이익	187	172	170	175	252
비유동자산	2,677	2,699	2,738	2,799	2,862	(EBITDA)	383	407	469	645	742
관계기업투자등	120	41	52	54	56	금융손익	-43	-20	-19	-23	-16
유형자산	2,325	2,423	2,431	2,460	2,465	이자비용	60	95	80	69	63
무형자산	22	18	50	71	117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3	0	0
자산총계	4,233	4,574	4,710	4,722	4,870	기타영업외손익	5	18	51	41	36
유동부채	1,330	1,454	1,252	1,238	1,232	세전계속사업이익	150	170	198	193	27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51	537	577	603	635	계속사업법인세비용	47	43	47	37	46
단기금융부채	912	807	577	532	491	계속사업이익	103	127	151	156	226
기타유동부채	67	110	99	103	10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비유동부채	1,198	1,249	1,403	1,337	1,278	당기순이익	103	127	151	156	226
장기금융부채	866	881	1,041	960	885	지배주주	103	126	151	156	226
기타비유동부채	332	368	362	377	392	총포괄이익	129	192	151	156	226
부채총계	2,528	2,703	2,655	2,575	2,510	매출총이익률 (%)	27.4	27.8	27.4	27.2	29.0
지배주주지분	1,696	1,862	2,050	2,142	2,355	영업이익률 (%)	6.9	6.0	5.3	5.3	7.4
자본금	54	54	54	54	54	EBITDA마진률 (%)	14.2	14.3	14.7	19.6	21.7
자본잉여금	67	67	67	67	67	당기순이익률 (%)	3.8	4.4	4.7	4.8	6.6
이익잉여금	1,506	1,606	1,747	1,889	2,102	ROA (%)	2.5	2.9	3.2	3.3	4.7
비지배주주지분(연결)	8	9	5	5	5	ROE (%)	6.3	7.1	7.7	7.4	10.1
자본총계	1,705	1,872	2,054	2,147	2,360	ROIC (%)	4.3	4.0	3.8	4.2	6.1

현금흐름표	(십억원)					주요투자지표	(원, 배)				
	2023	2024	2025	2026F	2027F		2023	2024	2025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242	259	351	680	681	투자지표 (x)					
당기순이익(손실)	103	127	151	156	226	P/E	7.7	4.7	4.8	4.3	2.9
비현금수익비용가감	385	407	434	436	506	P/B	0.5	0.3	0.4	0.3	0.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6	226	291	464	482	P/S	0.3	0.2	0.2	0.2	0.2
무형자산상각비	10	10	8	6	8	EV/EBITDA	6.0	5.2	4.6	3.1	2.5
기타현금수익비용	188	172	50	-43	7	P/CF	1.7	1.2	1.3	1.2	1.0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182	-173	-77	88	-51	배당수익률 (%)	1.4	2.2	1.7	1.9	1.9
매출채권 감소(증가)	-71	-11	-57	-1	-40	성장성 (%)					
재고자산 감소(증가)	2	-233	7	62	-42	매출액	4.0	5.4	12.0	2.9	4.3
매입채무 증가(감소)	-80	-17	-85	27	31	영업이익	흑전	-7.9	-1.1	2.9	43.9
기타자산 부채변동	-34	88	58	-1	-1	세전이익	흑전	13.4	16.8	-2.5	40.8
투자활동 현금	-324	-176	-156	-534	-556	당기순이익	흑전	22.9	19.3	3.2	45.1
유형자산처분(취득)	-321	-203	-221	-493	-487	EPS	흑전	23.0	21.4	3.4	45.3
무형자산 감소(증가)	0	0	0	-27	-54	안정성 (%)					
투자자산 감소(증가)	-14	20	59	-6	-6	부채비율	148.3	144.4	129.2	119.9	106.4
기타투자활동	11	8	6	-8	-9	유동비율	117.0	128.9	157.4	155.3	163.0
재무활동 현금	52	-190	-166	-139	-129	순차입금/자기자본(x)	87.6	81.2	68.2	59.0	48.8
차입금의 증가(감소)	62	-178	-153	-126	-116	영업이익/금융비용(x)	3.1	1.8	2.1	2.6	4.0
자본의 증가(감소)	-10	-12	-13	-13	-13	총차입금 (십억원)	1,778	1,688	1,618	1,492	1,376
배당금의 지급	10	12	13	13	13	순차입금 (십억원)	1,494	1,519	1,400	1,266	1,152
기타재무활동	0	0	0	0	0	주당지표(원)					
현금의 증가	-21	-100	22	7	-4	EPS	1,044	1,285	1,559	1,612	2,343
기초현금	258	238	137	160	166	BPS	16,286	17,877	19,678	20,567	22,610
기말현금	238	137	160	166	162	SPS	25,936	27,340	30,620	31,513	32,865
NOPLAT	129	128	130	141	210	CFPS	4,683	5,128	5,613	5,685	7,030
FCF	-19	186	352	145	125	DPS	115	130	130	130	130

자료: 넥센타이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 K-IFRS 연결기준

**넥센타이어 (00235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원)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5-11-27	담당자변경				
2025-11-27	매수	9,000	-13.4	-6.1	
2026-02-05	매수	11,000	-29.0	-11.6	
2026-04-30	매수	11,000	-34.5	-32.5	
2026-05-13	매수	11,000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향후 12개월간 주가 등락 기준)**

기업	산업
매수 +10% 이상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확대
중립 -10% ~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업종별 투자의견은 해당업종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매도 -10% 이하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 2026.03.31

매수	중립	매도
99.4%	0.0%	0.6%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